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30호

서기 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더우시죠?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계가 빌딩이라면, 우리가 그 빌딩 안에 있는데 빌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움직이고 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들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만약에 어느 빌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나서 나갈 구멍만 찾는 상황이라면, 남을 건지기는커녕 나부터 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왔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신도1: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신도2: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신도3: 몸은 죽고 마음은 날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님: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딩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것도 허다하게 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살겠다는 생각도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하는 거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살아야겠다는 건 이차적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중세계가 불타는 지옥과 같느니라. 상세계와 중세계, 하세계가 탄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자리에 있느니라. 과거가 흘러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몇 바퀴를 돌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옛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몇 바퀴를 돌아도 어찌해서 저 산은 그대로 있는가?' 하는 거요. 우리가 좀더 계산을 잘해 보세요. 자기 양심으로써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내 팔자' 소리도 안 나올 거고 '내 운명' 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닥 줄을 잡고 얼음판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제 만물만생이 다 그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모르는 아이들은 얼음이 녹는지 깨지는지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뒹어놓고 걷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시다가 화를 내면 얼음판을 걸어서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얼음이 얼면 녹으라고... 그래야 빠져 죽기 쉬우니까.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고, 그냥 극지에 이르러 마음이 팔팔 뒹면 얼음이 빨리 깨지라고 막 뛰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제가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세요. 나는 항상, 있는 얘기 하지 않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앞에 도달한 얘기를 하죠. 앞에 도달한 얘기도 미래면서 바로 과거고, 그렇게 초월해서 돌아가는 현재의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화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다 놔라.' 이러죠? 그러면 모닥불을 놓지 않고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팔팔 뛰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가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모닥불을 놓고 뛰면 얼음은 금이 가고 빠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빠뜨리게 되죠.

"스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양반들도 계실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어찌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50%는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50%는 보이는 데서 돌아갑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밤에는 자면서 돌아가고 낮에는 깨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밤에 도는 거든 낮에 도는 거든,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있는 그 가운데에 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 놓는다면, 내가 말한 일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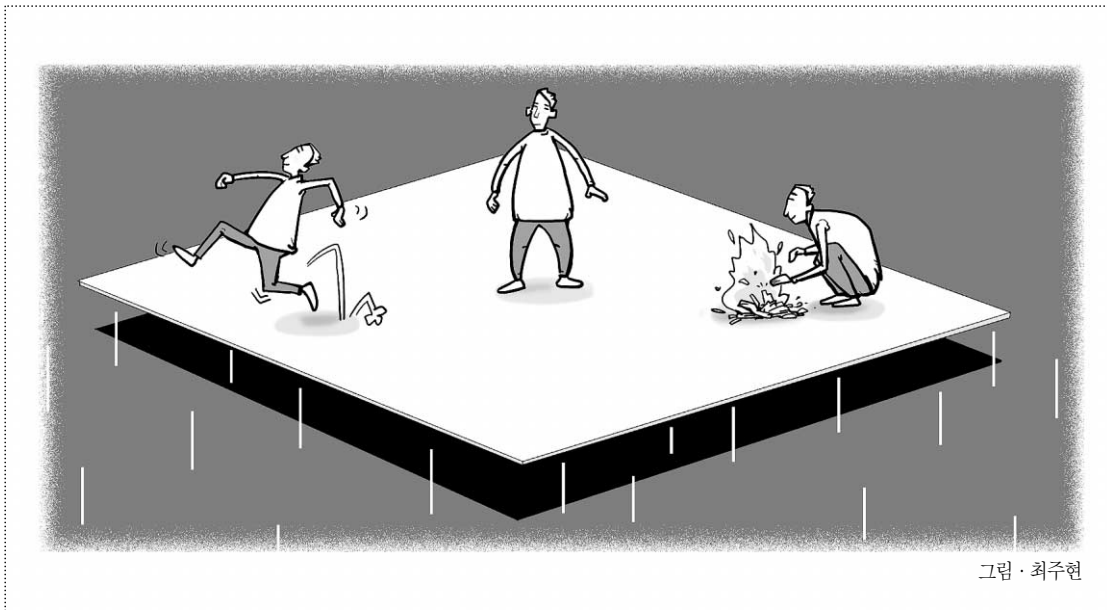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내가 훌훌하게 한 일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중심을 잡고 그래도 사람답게 걸었노라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법사 스님께서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승(大乘)이다 소승(小乘)이다 하기 이전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진화가 돼서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수억겁을 돌아 왔다구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했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봐도 내 아픈같이, 내 괴로움같이, 내 외로움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

속을 찍일 리가 없어요. '효도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천차만 별의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내 생명 같고 내 몸 같고, 내 아픈 같고 내 괴로움, 내 외로움 같으면 아주 그거는 효도라는 이름 아니더라도 그대로 정말 세세생생의 효도인 동시에 일체제불의 그 마음과도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까도 살얼음판 같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뜻을 모른다면, 칠모론

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과 자기 소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계관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의 탓을 하거나 형제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왜냐? 애당초에 소인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남마로 차원이 돼 있으니까 남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자기가 금으로 차원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면 금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으로 사는 사람 자만하지 말고, 남마로 사

미운 것도 잠시요 이쁜 것도 잠시니  
이쁘다 탈하지 말고 입다 탈 잡지 말라!

잠시잠시 바람이 흘러가듯  
하는 것이 인생살이니라!

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노인들을 따로 본다면 항상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현재 내 앞에 당면해 있는 내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서 잘못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해 놓고 그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속 안 찍어 드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 마음 같고 내 괴로움 같고, 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듯 그렇게 한다면 부모가 자식 속을 찍일 리가 없고 자식이 부모

다면 그냥 막 쫓아갑니다. 얼음이 깨지거나 말거나, 깨지는 걸 모르거든요. 금이 가든 깨지든 빠지든, 아랑곳없이 합니다. 그리고 부아가 나면 아무거나 막 집어서 던지고, 또 때로는 술 먹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집어다 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니다. 즉 말하자면은 얼음판이 빨리 녹고 빨리 깨지고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쪽이 다 빠지고, 자기도 빠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려 달라고만 하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람의 차원이 그렇게 많

는 사람 너무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타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금과 남마를 다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다 놓고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는 데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얹어집니다. 차원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소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시heet 말로 한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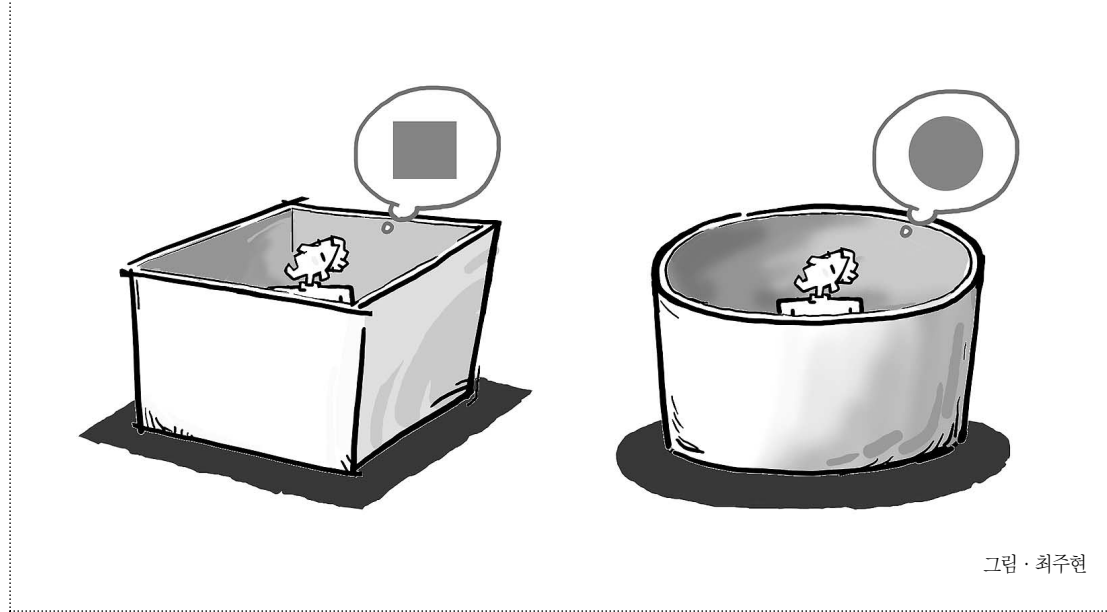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과거에 스스로 짊어진, 누적돼서 입력된 거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서 넣는 그 입력이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대로 자꾸 나오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참나참나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활 아닙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참나참나 화해해서 돌아가는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한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니라.'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드라니, 이렇게 돌아가느니라 저렇게 돌아가느니라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얕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거두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아, 안 되겠다. 비가 오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리의 법칙을 우리들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동물로서 철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앞서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려드레도 못 때어 놓습니까?

참, 여러분이 오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다 맞습니다.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없이 다 맞는데, 좀 높이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는 게 되죠. 만약에 저 헛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라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편의 마음을 조절할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헛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불어서, 불이 번져 들어오게 돼 있고, 평소엔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신이 돼야요!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닦아오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신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인을 제대로 하죠.

만날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나도요. 여러분과 같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의 근원을 붙들고 생명을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뛰시면서 부지런히 거기다 놓고 가시면, 그대로 바퀴의 굴림이 저절로 정신세계의 굴림과 물질세계의 굴림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라 생각하세요. 사실이니까요. 질문할 것 없습니까?

▲질문자: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스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얼음판 위지만, 그냥 그 위에 눈썰매 하나 더 없는 셈이고 걱정 없이 망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덜 여운 이런 상태에서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몸이 이렇게 문득 나오게 된 것은, 기회 있을 때에 큰스님에게 눈도장을 탁 받아 놓고, 더

30면으로 계속

#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그림 · 최주현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00, 팩스(02)737-0697

### 29면에서 계속

불어 우주 법계에도 그렇게 눈도장이 찍혀서 큰 스님과의 인연이 세세생생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울러 그 동안 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집 한 세 가지를 질문 올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합창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창단을 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에 저로서 얻은 이득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저 혼자 답아 댔다가는 이것도 욕심이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얻은 이득은, 수행의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일 주일에 한 번, 일곱 시에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속 생활의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생심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 그 두 마음의 싸움에서 갈등을 이기고

아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오히려 제대로 안되는 그런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높은 음이더라도 낮은 음이나 그냥 일반 음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경계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번째 체험은, 우리들이 합창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리가 조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옆의 사람의 소리와 내 소리가 어울려야 내 혼자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마음 놓고 질렀다가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스님의 법문에 대해 실행을 한 이득이고, 또 다른 이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합창을 지휘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나 또 거기다 반주 선생님까지 양쪽을 이렇게 얹혀 놓고 공부를 하려면 세속 생활에서는 실지로 엄청난

을 한번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창 바둑 같아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앞을 보라. 그러면 어서 가거라. 옷 벗어 놓고, 이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놓고, 땅도 밟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살 수 있으면 너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놔라, 땅도 밟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마라,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죄 했으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지금 저 안에서 말하듯 '아, 이거는 바로 같이 음파를 타고 돌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겠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갈등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냥 당연히 나오게 되고, 또 못 가게 될 이유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들이 맞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잘되고 그냥 그대로 좋은, 그런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득 좋은 생각이 나면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것이 첫째 이득이고, 두번째 이득은 스님이 누구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실지로 체험을 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엔 말하듯이 가볍게 숨쉬고 목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라도 아랫배 깊숙이 집어넣어서 한 번 돌려서 거기서 올라오는 힘으로, 성대를 그냥 이용만 해서 그렇게 내는 도리를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나누는 생각들을 그냥 머리론만 생각해서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리에, 본래지리에 놓고 돌리는 그 도리, 그것이 바로 노래의 기본 도리라고 똑같은 것을 안 것이 첫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음조가 아니고 높은 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 다음에는 높은 음이다.' 머리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감으로 해서 몸이 굳어지고 성대가 굳어지니, 숨이 제대로 나오질 않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을 그냥 지켜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공짜로 하게 되니 이것이 또 큰 이득이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 제일 가까운 데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이득이니, 이 많은 이득을 저 혼자 말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별받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나름대로 느끼고 겪은 이득이니까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이득은 스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아주 일등으로 해 나가십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울러듯이 말입니다. 문이 없는 데로 나고 들어가 진짜 공부다 했더니, 문 없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 그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당신께서는 벽도 없으니까 붓장도 없고 문도 없고, 이렇게 문을 찾지 않는 그 도리를 슬기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합창단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을 환영합니다.

▲스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질문 글 무렵에서 합창을 할 때에 모두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 만물만생이 다 같이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또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서 내일 또 태어나도 '나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옷만 자꾸자꾸 갈아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리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회향을 잘해야 되느니라.' 이러셨거든요. "미운 것도 참시오, 이쁜 것도 참시오, 이쁘다 말하지 말고 밍다 말지 마라. 잠시잠시 바람이 불러가듯 하는 것이 인생살이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많거든요. 밍다고 밍을 잡고, 이쁘다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를 뭐 하다가하거든요. 그러나 또 내가 막상 생각을 해도, 이런 말을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간판이 좋아 회사에서도 빨리 뽑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간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간판을 좋게 타고 나는 것도 바로 자기가 한 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도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질문할 것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사)해동 05-8호

사칭명	성명	법명	직위	비고
승안사	황성수	송명	부원장	충북 제천시 남천동 16
대흥사	민형기	효산	봉사단장	평택시 진위면 건산리 27-6 경원APT 라동107호
명주사	정명주	교송	경남총무원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
성불사	하성후	도산	주지	경남 밀양시 가곡동 693

상기인은 2005년 5월 28일자로  
증헌종법(상벌법) 제3장 3.4항에  
의거 제적 이에 공고함.

불기 2549  
서기 2005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사정원장 **경신**  
전화: (031)262-1577, 263-1353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 불 전 함

**가 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 과일의 왕 두리안

# Sale!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유선으로 바로 주문하면 **같이 보내드립니다!**

수령률과 불타남들의 승인이 힘입어  
수령률과 불타남들의 승인이 힘입어  
금번 두리안 열 대항 주인의 개와 무관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여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아 40도로 금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예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맛고과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135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E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용용창, 국민회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물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옮겨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원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발바닥에서는 원적의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 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만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천전했음에 자연적으로 3과로 증가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이든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상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팩스 041)832-1187